

살기 좋은 도시 전국 3위 선정

남원시, 한국지역경영원 세미나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도시이자 지속 가능한 도시 3위에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 경제 및 고용, 교육, 건강 및 의료, 안전 등 5개 영역에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25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순위를 산정, 남원시는 총점 570.5점을 획득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종시, 수원시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평가 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인구성장률, 출산율, 추계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한 인구 부문에서는 합계 128.8점을 기록했으며, 경제 및 고용 부문에서는 합계 119.4점으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고용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도시이자 지속 가능한 도시 3위에 선정됐다.

인프라와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합계 112.7점으로 전국 25위에 올랐으며, 건강생활실천율, 의사 천명당 의사수 및 병상수, 미충족의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한 건강 및 의료 부문에서는 합계 192.4점을 기록하고, 안전도시 부문은 통계청의 지역안전등급현황 2022년 자료를 활용해 점수를 산정한 결과 17.3점으로 전국 29위에 올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평가는 8만 남원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남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추억의 수학여행 프로그램 본격 운영

시니어층 위한 맞춤형 콘텐츠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은 최근 순창군을 방문한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동창회를 대상으로 추억의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추억의 교실'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추억의 교실' 프로그램은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시니어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로, 시작 전부터 전국 각지의 많은 단체인 문의를 받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재단은 이번 콘텐츠를 위해 순창의 음식 스토리마켓 2동 1층을 다목적 체험 공간으로 변모시켜, 옛날 책상과 의자, 양은 도시락, 난로, 칠갑, 풍금 등 향수를 자극하는 소품을 배치하고, 교복과 교련복, 책가방 등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템들을 구비해 전시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단은 지난해 11월 서울대 사대부고 동문회와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동창회 25명은 추억의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학창 시절로 돌아가 예전 교실 풍경을 배경으로 동창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문회원들을 위한 순창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추억의 교실을 활용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첫 프로그램 참가자인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동창회 25명은 첫날 체계

산 출렁다리를 탐방한 후 추억의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학창 시절로 돌아가 예전 교실 풍경을 배경으로 동창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이어 교복을 입은 채 발효테마파크와 고추장민속마을을 둘러보고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노후 수도계량기 무상 교체 추진

임실군이 안정적인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후 수도계량기 무상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체 사업은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수도계량기를 교체해 측정 오차 발생, 계량기 누수 등을 방지해 수

도계량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구경 50mm 초과는 6년, 그 밖의 수도계량기는 8년으로, 군은 검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 800여

개를 교체하고 있다.

또한 검정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확한 검침을 통해 누수를 확인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해 무선원격검침을 전체 1만3,223 수용가 중 현재 6,747개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재배 농가 지원

임실군, 고추 재배면적 407ha 대상 사업비 1억8000만원 편성

임실군이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한 재배 농가 지원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고추 주요 병해충인 탄저병 및 꽃노랑총채벌레, 담배나방 등을 방제하기 위해 고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 약제 공급을 완료했다.

군은 올해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고추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임실군 고추 재배면적 407ha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살충제 1종, 살균제 1종을 지원하며 병해충 공동방제 협의회를 개최해 약제를 선정하고, 농가별 고추 재배면적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하여 공급했다. 살충제는 고추 주요 해충인 꽃노랑총채벌레와 담배나방 등을 중점에 두고 선정했다.

꽃노랑총채벌레는 5월 상순부터 발생하여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에 발생량이 가장 많으며, 주로 꽃 속에 서식한다. 잎을 흡즙하여 뒤물린 모양의 기형으로 만들고 갈라병이라 불리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를 매개한다.

담배나방은 보통 5월 중순부터 발생하며 유충이 과실 속으로 들어가 종실을 가해에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은 과실은 연부병에 걸리거나 부패해 대부분 낙과되어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곧바로 과실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제살포 적기를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고 과고 들어가기 이전에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일단 유충이 과실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방제 효과가 떨어진다. 고추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조건(온



도 29°C 이상, 습도 90% 이상)과 비바람에 의해 쉽게 확산되며, 주로 고추 열매에 발생하고 연녹색의 작은 병반이 점차 둥근 결무늬로 확대돼 검게 썩어 들어가 수량 손실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이다.

특히 고추 탄저병은 고추 생육이 왕성해지는 6월 중하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장마철 7~8월에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추 생산 및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병 발생 전에 예방 위주로 사전 방제가 필요하며 날씨 예보에 따라 적기에 방제해 병원균의 밀도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김성수 소장은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고추 주요 해충 발생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공급된 공동방제 약제를 이용하여 정밀한 예찰을 통해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개최

15일 사랑의 광장서

남원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랑의 광장에서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은 리사이클링(Recycling)과 업그레이드(Upgrade)의 합성어로, 기존에 버려진 상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전혀 다른 새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쓰임 사회적협동조합, 초록나무협동조합, 청년단체 모꼬지, 시 환경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 사용하지 않는 폐가구와 폐목재를 가지고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화분, 다용도 바구니, 의자, 휴대폰 거치대 등 다양한 물품으로 재탄생된다. 또한, 환경과에서는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및 요일제 분리배출 홍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해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영재 환경과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과 탄소중립 공감대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홍보하고, 재활용을 통한 실천과 시민의식 형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남원, 취약분야개선 사업 공모

남원시가 안전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4년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 공모사업'에 참여, 지난 24일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2억 5,000을 포함한 총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안전에 효과적인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원시는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통사고 분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도동동과 금등을 "시설개선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 6월~12월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남원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사업"과 2023년부터는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어린이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손씻기 및 기침 예절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인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은 호흡기 질환 및 수인성 질환 발생을 50~70%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식중독 등의 수인성매개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로, 면역력이 약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 특성상 집단발병의 위험이 크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의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의료원은 어려서부터 생활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감염병 예방수칙 생활화를 위해 어린이 맞춤 교육으로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의 중요성을 알려줄 예정이다.

또한 손씻기 뷰박스를 활용하여 1:1 맞춤형 실습교육 및 체험을 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